시

김정숙동지의 립상화를 우러르며

류드밀라 아브제예바 (로씨야)

아름다운 장미꽃 같으신 김정숙동지
립상화에서 사랑담아 웃고계시네
젊으신 모습의 녀사를
조선인민 모두가 우러르네

새의 깃과 같은 까만 눈섭
깊은 호수와 같은 눈동자 …
김정숙동지, 그이의 빛나는 생은
전설같이 전해지여라

립상화에 비껴진
강물과 수림, 무수한 산들
변모된 조국의 모습들 …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눈동자에 어려있어라

군복을 단정히 입으신
녀사의 젊으신 모습
그이 손길은
조여매신 허리띠의 권총집에 얹혀있어라

조선의 미래를 축복하는듯
립상화엔 진달래가 활짝 피여 웃어라
꽃속에 웃으시는 녀사의 모습
우러를수록 아름다워라

피어린 전투장들을 헤쳐넘으신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
백두광명성이신 **김정일**동지를 안아올리시였어라
조선인민에게 대행운을 안겨주시였어라

립상화에서 환히 웃고 계시는 그이
상냥한 시선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듯
너무도 일찌기 고귀한 생을 마치신 녀사
우러를수록 내 가슴 저려와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녀사
그이의 존함 천만년 세월 가도
인민들 마음속에 불멸하리라
력사의 갈피속에 길이 빛나리라